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02	03. 09	03. 16
대 표 기 도	최종열 성도	김새연 자매	자유
성 경 봉 독	최종열 성도	김새연 자매	예배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금요기도회 - 방학 중에도 매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음대에서 모입니다.
4. 한국방문 - 이상호 목사(2월27일~3월21일)
5. 나눔의 시간 -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새 교우	
김지혜 자매 - 재즈 피아노 전공	
오세란 자매 - Alte Musik 성악전공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2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1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상호 목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32 : 1- 11(구p824) (Pslam 32:1-11)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회복 - 신중한 검토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을 위하여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하는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4.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값진 인

인간은 세상에 ^생잡힌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William Shakespeare도 ‘인간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한 때 무대 위에 나타나 뽐내고 빠기지만 곧 사라지는 배우와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후회 없이 사는 길일까요?

한 젊은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건져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구해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게 감사하고 은혜 갚을 것은 없네. 단지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 줄 만큼 자네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면 되네”

참 귀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너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고 살려줄 만큼 값진 인생이었는데를 보여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려는 욕심을 버린데서 오는 삶의 초연함과 가벼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유로움과 여유를 가집시다.

이전보다 큰 영광 / 故 박희민 목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솔직하게 보일까요?
2. “solistian”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세요.